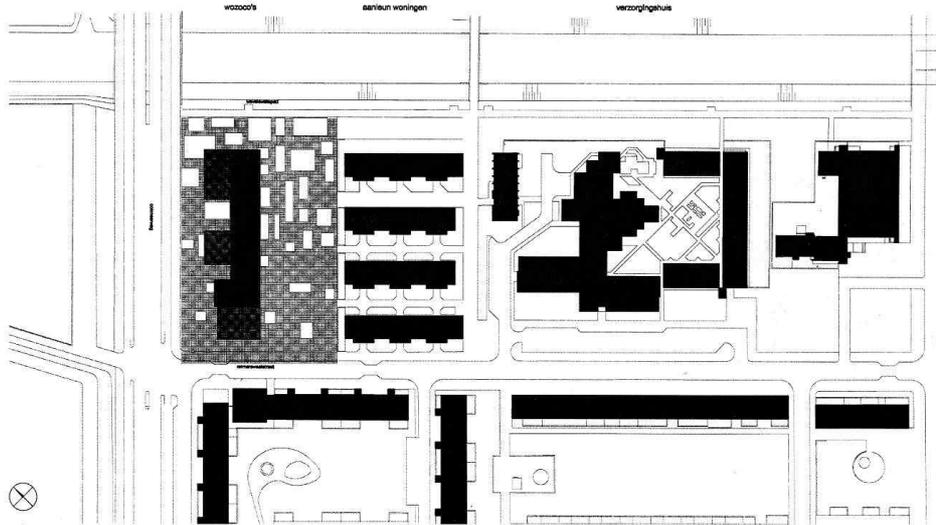


WoZoCo

199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VRDV



보조코(WoZoCo's)는 보온Woon, 저르흐Zorg 그리고 콤플렉스Complex의 줄임말로 보호 주거개발(Sheltered housing development)로 해석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Oklahoma로 불리우기도 한다.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암스테르담의 서부전원도시는 이 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개방된 녹지공간을 조여 오는 고밀도의 건축군의 증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최후의 프로젝트가 이 집합주택이다. 전면도로인 북측에서 건물로 진입해서 서측 단부 필로티 부분에 설치된 공동 출입구를 지나면 바로 전면에 엘리베이터와 주계단의 코어가 설치되어 있다.



복도는 편복도형으로 주 계단을 통해 각층 복도로 진입하고 그곳에서 각 주호로 연결된다. 이 집합주택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몇몇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상 계획된 100호는 도시계획가인 반 에스텔렌(Van Eesteren)이 제정한 법규(AUP regulation) 상으로는 87호만이 건설가능했다. MVRDV는 100호를 채우기 위해 남-북측의 대지에 7.2m 모듈을 사용해야 했다. 나머지 주호는 7.2m 모듈을 제외한 대지 안으로 일련의 거대한 주호 매스를 돌출시킴으로써 모자

란 13호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적으로는 캔틸레버에 의해 지상의 오픈 스페이스를 감소시키지 않고 13호의 스페이스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대지의 위치 상 외부공간에서 건물로의 어프로치는 대도로 변에서 이루어지며, 어프로치부에 일련의 주차장 또는 소규모 광장을 둠으로써 동선을 여유있게 건물 내부로 유도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서

는 서측의 현관을 통해 작은 코어로 이동하며 이곳으로부터 각층 복도와 주호로 동선이 이어지고 있다. 북측으로 돌출된 주호의 경우 일순간 중복도형이 되어버리는데 복도의 폭에 비하면 그 길이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어서 채광이나 통풍 또는 프라이버시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집합주택은 놀라울 정도로 길게 돌출된 캔틸레버가 특징이다. 길이 약 85m, 폭 13.3m의 세장한 평면을 하고 있는 편복도의 이 건물에 북측 복도 외측으로 11.3m 정도의 캔틸레버로 돌출된 주호 유닛을 설치해 놓은 것은 구조적으로도 큰 실험이었다. 이러한 경우 MVRDV가 이전의 프로젝트인 <더블 하우스>에서와 같이 내부공간에 인근 주택의 거실 매스가 캔틸레버로 튀어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다. 북측 외벽에 돌출된 5개의 캔틸레버는 2층 주호 유닛이 4개 그리고 1층의 유닛이 하나이다. 목재로 마감된 외벽에는 각양각색의 칼라 아크릴 판이 설치된 작은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다. 지상으로부터 올라다 볼 경우 11.3m의 캔틸레버 박스는 경이적인 박력감을 보여주고 있다.

북측의 편복도와 캔틸레버 매스들에 반해 남측에 배치된 주호군은 북측의 외벽과는 달리 외벽에 목재판으로 마감했고 여기로부터 다양한 색채의 발코니가 다수 돌출되어 특이한 구조체계를 보여준다.



공동주택으로서의 Wozoco는 노인을 위한 아파트라는 초기 계획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미지를 던져준다. 전면도로를 면하여 북측에서 보이는 공중에 떠있는 건물 매스의 혁신적이고 과격한 인상은 네덜란드 아방가르드의 현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사건이다. MVRDV는 네덜란드의 신예 건축가 그룹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신들 조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건축물을 의뢰받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실험적이면서도 과감한 건축적 제안을 내놓기로 유명한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디자인이 통용되는 것은 이들의 건축적 사고가 분명 현대 건축의 한 맥락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작업은 네덜란드 기능주의의 건축적 전통에 한쪽 발을 두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의 현대적 공동전선, 즉 광의의 철학적 포

스트모더니즘의 논리에 다른 쪽 발을 두고 있다.

이들은 현대 네덜란드의 도시와 건축디자인의 문제를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 건축적 사고의 감수성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기계적이기까지 한 그러나 결코 형식주의나 실용주의적 논리의 냉혹한 규칙을 부과하는 기능주의가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의 새로운 해결책은 새로운 형태를 고안하거나 창조해내는 네오 아방가르드적 디자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상식을 초월하는 데서 오는 과격함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창조성을 새로운 형태의 고안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하는 제약들을 재현함으로써 표현된다. 형태는 그것이 의미하는 정보에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아파트는 형태적 또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기능적이며 비심미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민감한 현실 참여적 디자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MVRDV의 작업은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라고 불리우는 그들 특유의 디자인 사고를 건축화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데이터스케이프”란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한다. 즉, 외부(건축적 실천 및 그것을 지배하는 관련기구를 통솔하는 경제적

힘)로부터 부과된 제약, 다시 말해서 건축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보를 기호화할 수 있는 특수한 수단을 명료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내재적(건축기술, 건축적 관습, 그리고 건축작업의 습관) 규칙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건축의 전통적인 원근버적 또는 추론적 효과들보다는 공간적 또는 질료적 효과들에 더욱 관심을 두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에서는 이들의 공간적이고 질료적인 표면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측 전면부의 복도 입면에 사용된 유리외 도로 측으로 튀어나온 주거 매스의 목재 마감이 자아내는 인상이 상당히 질료적이다. 이 효과는 심미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이며, 건축가의 미의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건축가의 자동기술적인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코드화하고 있는 듯하다. 남측에 설치된 각 주호의 칼라풀한 발코니는 사회적 제한과 한계 그리고 경제, 기술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각각 차이성을 지닌 채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남측 입면에서는 북측 전면과는 완전히 전도된 상태로 튀어나온 발코니 부분은 칼라 플라스틱 판넬, 스틸, 그리고 유리로 마감되고 벽체는 목재로 처리되어 있어 남부측의 디자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기호의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다.